

어린이 책꽂이

▲계축일기 = 1613년 계축년에



일어난 인목대비 폐비사건을 비롯해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둘러싼 당쟁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계축일기 원문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면서도 읽기 쉽게 풀어 써 고전에 대한 친근감을 준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500원>

▲수학미망 Z 5 = 수학의 근본이



되는 수와 연산을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된 책이다. 수의 역사와 기수법, 명수법 등 기본적인 수의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웅진주니어·8천800원>

▲백남준 = 한국이 낳은 천재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부제가 붙인 이 책은 비디오 아트의 세계를 연 예술가 백남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백남준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주니어 랜덤·8천원>

▲석수장이 아들 = 1950년대



채록한 전래 동요를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석수장이 아들과 친구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흥겹게 한판 말놀이 대결을 펼친다. <창비·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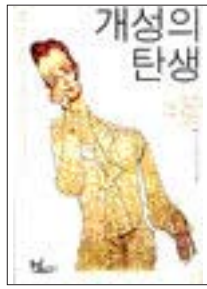
▲아이들을 사랑한 유대인의 영



웅=목숨이 다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훌륭한 교육자 야누시 코르차크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 절망스런 순간에서도 잃지 않는 용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미래 M&B·1만원>

세상에 왜 똑같은 사람은 없는걸까

개성의 탄생 주디스 리치 해리스 지음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외모 외에 개성이라는 '성격의 지문'을 갖고 있다. 개성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해석됐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심리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격이론이나 성격발달 이론조차 한 집안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이나 행동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가 쓴 '개성의 탄생-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한 나인가'는 인간의 개성과 차이가 생기는 기원을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개성이라는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자신을 탐정으로 설정, 살마리를 찾아나간다. '수사기법'에 동원된 학문은 사회심리학, 언어심리학, 신경과학을 비롯 곤충학도 포함돼 있다.

저자가 개성을 규명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일란성 쌍둥이다. 지난 2003년 분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이란의 일란성 삼쌍둥이 라단, 탈레흐 비자니 자매. 이들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29년간 완전히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둘의 성격과 인생의 목표는 판이하게 달랐다. 각각의 꿈인 변호사와 기사가 되기 위해 분리 수술을 택한 끝에 그들은 숨을 거뒀다.

이들의 삶을 통해 저자가 개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규정한 메커니즘은 '관계체계', '사회화 체계', '지위체계'다.

관계체계는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다. 형제간의 위계나, 사회생활에서 지위고하로 정해지는 상·하간의 관계 등 우리의 처지와 대인간의 관계가 개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그들이 교류하는 모든 개개인을 상대로 한 마음의 '작동모양'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왜 한·일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대~한국'을 외치는 애국자가 될까.' 이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마음으로 압축되는 사회화 체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집단소속감과 자기사회화에 따라 개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집단 소속감과 연관된 강렬한 감정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형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위체계도 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인간은 어느 상황에서나 높은 지위를 추구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는 자신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에 비해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 우월한가를 비롯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지 등 상황분석을 통해 경쟁자를 보다 우위에 서려는 '지위체계'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녘사이언스·1만8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람 성격은 유전자 아닌

인간관계·사회성이 결정

젊은 작가들과 함께 문학의 미래 고민하기

박범신이 읽는... 박범신 지음



중견 소설가 박범신씨가 젊은 소설가들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린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행사에서 그는 매주 1~2명의 젊은 소설가들과 함께 한국 문학의 미래 등에 고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묶어 '박범신이 읽는 젊은 작가들'을 펴냈다.

유명 문학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참여 작가는 총 14명이지만 책에 묶인 것은 이 중 12명. 이기호·심우경·백가흠·오현종·손홍규·이신조·김도연·김종광·김중은·김도연·김 승·박성원씨 등 등단 5년 안팎의 30대 소설가들이다.

박씨는 "우리 소설문학의 미래가 여기 등장하는 '젊은 그들'에게만 얽혀져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의 방향성을 담보한 지형도는 이 책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학동네·1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뉴욕·파리·런던 소개한 여행기 동시 출간

나만의 뉴욕 외 2권



뉴욕, 파리, 런던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다. 세 도시를 여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은 'Refresh' 여행기 3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9년째 뉴욕에서 살고 있는 이윤경씨가 쓴 '나만의 뉴욕'은 뉴욕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동네마다 자랑할 만한 볼거리, 먹거리, 쇼핑 지구, 문화 지대, 멋진 건축물, 유서깊은 장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파리지앵 8년차 이동섭씨의 '나만의 파리'는 생제르망 데프레, 오르세 미술관을 시작으로 몽파르나스와 오데옹, 뤽상부르 공원 등에 이르는 9개 지역으로 파리를 나누어 문화, 예술, 요리, 패션, 건축 등을 소개한다.

'나만의 런던'을 쓴 여인혜씨는 웨스트 엔드 극장물, 소호, 코벤트 가든, 차링 크로스 로드 메이페이 등 런던의 주요 지역을 13개 지역으로 나눴다. <시공사·각 권 1만1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피터 드러커 '미래의 결단'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 사람은 살면서 많은 책을 보면서 스스로 발전하고 한계를 극복한다. 비록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온갖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다독과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해답을 얻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인생은 하나의 검색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가 있으며 그 변수에 적용되는 것은 결국 개성을 가진 개개인이자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문자화된 책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길 제시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6~17년 전 젊은 나이에 처음으로 임원이 되었을 때 고민은, 과연 어떤 경영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수많은 책을 접하며 본인만의 경영철학과 방향을 갖고자 노력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터닝포인트·turning point)이자 기회이며 도전이었던 이 시기에 만난 것이 바로 피터 드러커 교수의 '미래의 결단'(한국경제신문)이라는 책이었다.

경영자는 늘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성과가 좋다고 안주하지 않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경영자다. 특히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너

끊임없는 교육 필요성 일깨워



무나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도 '사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없어야 늘 담당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미래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바탕을 바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다.

드러커는 기업가란 "기회와 시기에 대한 냄새를 맡는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역설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조직이 진부화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폐기를 통해 조직을 유지하고, 비교객들을 통한 관찰로 조직이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은 언젠가 정상체도에 올라 기업의 목적을 하나씩 달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끊임없는 진단과 분석으로 조직이 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의 '교육받은 사람'이란 "계속해서 배울 필요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의 경쟁력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만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그러한 경쟁력의 근간이 바로 늘 학습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감명을 받은 내용을 실제 경영에 접목시켜 증권사 CEO 시절에도 그랬지만 광주은행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투자였다. '개권유익(開卷有益)'이라는 말이 있다. 책을 펼치면 이로운이 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 리 없다. 특히 다양함으로 점철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겐 말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책을 열어라. 그러면 미래가 보일 것이다."

정태석 <광주은행장>



RODEM 식수업 전문점 신제품출시 로데믹갤러리 신제품출시. 다양한 신제품 소개 이미지와 할인 정보 포함.

한빛공무원학원.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수험생 향유. 이특방학 7.9. 공무일 합격대특강. 이특방학 대특강 7월 2일. 연락처: 234-0224